

사회

# “관공서·기업 구내식당 때문에 못살겠다”

## 손님 흡수에 주변 영세식당들 “골목상권 죽이나” 울상

### 서구청사 주변 비싼 스티커도 나붙어

광주시 서구청사 주변에 이틀에 걸쳐 ‘구청 구내식당 때문에 골목식당이 죽고 있다’며 구청장을 비난하는 스티커(사진)가 나붙었다.

서구청은 지난해 9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구내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 점차 서민이나 회사원들의 이용이 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하루 이용객이 300여명을 넘어서면서 인근 식당의 점심 손님들을 왕창 흡수하고 만 것이다. 불황을 견디다 못한 식당 주인들이 구청장을 비난하는 스티커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이날 새벽 이틀 동안 스티커

60여장이 청사 주변 버스승강장과, 전봇대, 안내표지판에 나붙거나 도로에 뿌려졌다. 가로 9cm·세로 7cm 크기의 이 스티커에는 “서구청장은 수백억 국민 혈세로 만든 청사 안에 호화호텔급 구내식당을 개장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께 식대 3,5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구청 앞 골목식당은 죽든말든 서구청장의 선거에 표심을 받으려는 ‘꼼수’로 상업에 발 벗고 앞장서니...(후략)”라는 글귀와 함께 서구청 비서실 전화번호와 함께 출석했다. 또 이 스티커는 ‘골목상권살리기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서구청장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기까지 했다.

서구는 스티커를 전량 회수하는 한편 추가 스티커가 뿌려질 경우 등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왜 서구청장은 수백억 국민 혈세로 만든 청사 안에 호화호텔급 구내식당을 개장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께 식대 3,5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구청 앞 골목식당은 죽든말든 서구청장의 선거에 표심을 받으려는 ‘꼼수’로 상업에 발 벗고 앞장서니 우리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식당을 폐업하던 말던 하는 광주서구청장을 표심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지난 9월 문을 연 서구청 내 구내식당은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뷔페식 점심 값이 3500원 밖에 되지 않아 손님이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빛고을·효령 서구는 스티커를 전량 회수하는 한편 추가 스티커가 뿌려질 경우 등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내식당의 경우는 갑박 한 줄 가격 밖에 되지 않는 1500원에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2000~2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구내식당 주변 식당업주들은 못내 불만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다양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구내식당이 운영되면서 점심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구내식당이 문을 열 때는 인근 식당 업주들이 단채로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 식당 업주는 “직장인들의 심정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밥 몇 그릇을 팔아야 겨우 손해를 면하는 영세상인들의 입장도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서도 급발진 추정 사고 논란

### 시동 순간 12m 돌진 차량 4대 들어받아

최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9시 4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모(55)씨가 아반떼 승용차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12m 앞에 주차돼 있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치면서 점심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구내식당이 문을 열 때는 인근 식당 업주들이 단채로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 식당 업주는 “직장인들의 심정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밥 몇 그릇을 팔아야 겨우 손해를 면하는 영세상인들의 입장도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다”며 “중립인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현대자동차(주) 광주서비스센터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고는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서비스센터로부터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본다”는 통보를 받은 정씨는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모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곳에 주차 중이던 오퍼러스 승용차도 충격으로 범퍼가 파손됐다.

정씨는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시동을 켜자 차량이 곧바로 돌진했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니원침 (8574)



## 해남 앞바다 황포돛배 충돌 2명 실종

### 목포해경, 예인선장 조사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해남 앞바다에 뒤집혀 선원 2명이 실종된 황포돛배 사건과 관련 돛배와 충돌 후 달아난 부산선적 160t 예인선 S호 선장 설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설씨는 황포돛배가 예인선과 충돌한 후 뒤집혀서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 발견한 것처럼 해경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진도 레이다 기지, 목포·진도 해상교통관제

센터의 항적자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영암 모 조소소 앞 정박지에서 설씨를 검거했다.

19t급의 황포돛배는 지난 22일 새벽 5시에 부산에서 출항,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FRP로 건조된 이 선박은 체험용 유람선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 선박은 23일 밤 10시께 해남군 화원면 임화도 남쪽 2마일 해상에서 전북해 선장 김성중(65), 선원 최충진(65)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서부취재본부=김명기기자 dss6116@

## 단위조합장·직원 짜고 양파 판매대금 끌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무단 운남농협조합장과 직원이 짜고 양파 판매대금 1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9일부터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운남농협 박모(57) 조합장과 판매계 직원 김모(49)씨는 5t트럭 2대 분량의 양파 판매대금(16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박씨는 최근 1600만원을 사비로 농협에 가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이주여성 위한 ‘가족 음악회’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유동 YWCA대강당에서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애) 주최로 열린 ‘이름다운 가족음악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박주선, 피고인 상대 증인신문... 혐의 부인

특수통 검사 출신 피고인의 재판은 남달랐다. 특수 수사를 전담했고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낸 무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 얘기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합당 국민경선 광주 동구지역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반대신문을 벌이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유태명 동구청장과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이모(46·구속기소)씨, 선거법

프록보 박모(53· )씨, 민주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 )씨,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 )씨와 함께 출석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전 정책실장 김씨를 상대로 10여분 동안 이례적인 반대신문을 벌였다. 이날 박 의원은 피고인인

김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 지자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캐묻는 것이다.

그는 증인석에 앉은 김씨에게 “내가 경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반복했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장만채 교육감 “대가성 없었다”

### 검찰, 증거자료 686개 항목 제출

### 24일 첫 공판서

순천대 총장 재임시와 교육감 재직 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범정에서 열린 공판에 함께 기소된 의사친구 정모, 손 모씨와 출석했다.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또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부인하지 않고 순수한 뜻에서 카드 사용을 하

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 교육감은 옥중 단식 여파 등으로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50여명의 순천대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중 결핵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모두 686개 항목의 증거물과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 형사중범정서 열린다.

한편 장 교육감측은 지난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급보석을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왜 끼어 들어” 택시기사 폭행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끼어들기 시비로 말다툼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어 자신의 버스에 올라탄 택시기사 안모(43)씨를 버스 밖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

○이씨는 안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를 내며 비난했고, 이에 격분한 안씨가 버스에 올라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했다고 경찰이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호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국내 여행

목포-제주도 **판매가 ₩139,000~ 실속 ₩109,000~**

장흥-제주도 **판매가 ₩159,000~ 실속 ₩149,000~**

목포+무안공항 ₩139,000~

광주-제주도 ₩259,000~

울릉도 2박3일 ₩325,000~ 홍도, 흑산도 1박2일 ₩294,000~ 1박2일 ₩189,000~

#### 미주

미서부 3대개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9일 ₩1,990,000~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 나이아가라 일주 9일 ₩2,590,000~

미서부(3대개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 13일 ₩3,190,000~

#### 일본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세요!!

구중산 빌라형동나무콘도 (출발확정) 4일 ₩349,000

구중산 철쭉 축제 동반 4일 ₩399,000

일본 전통료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49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일 ₩519,000

#### 유럽 유럽으로 떠나세요!

서유럽 3국 8일 ₩2,890,000~

서유럽 5국 10일 ₩3,190,000~

안탈라/터키 일주 8일 ₩2,290,000~

스페인/포르투갈 10일 ₩3,290,000~

#### 중국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무안-북경/평요/면산 4일 ₩869,000~

무안-북경/평요/면산 5일 ₩91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42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99,000~

무안-상해/장가계 4일 ₩899,000~

무안-상해/장가계/웨계/제가/제가 5일 ₩1,299,000~

무안-상해, 향주, 황산 5일 ₩749,000~

청주/연길 전세기(KE) [6/30~8/29(수/토)] 출발

백두산(북파) 3박5일 ₩1,080,000~

백두산(북파/서파) 3박5일 ₩1,110,000~

백두산(서파/북파) 4박6일 ₩1,150,000~

#### 동남아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뜰 ₩839,000~

실속 ₩889,000~

품격 ₩989,000~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3박5일(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관광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예약시 계약(서신/구) 및 일정표준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최소 출발인원: 성당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신/구) 및 일정표준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